

경주시, '체리 1번지' 명성 알린다

경주농협 본점 앞서 첫 수확 체리 품평·시식 행사

국내 최대 체리 주산지인 경주시가 '체리 1번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올해 첫 수확한 경주 체리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행사를 열었다.

경주시는 지난 6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경주농협 본점 앞에서 경주 체리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짧은 수확기를 맞은 경주 체리의 신선한 맛과 품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올해 첫 수확한



▲ 수확기를 맞은 경주 체리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다.

체리를 품종별로 시식하고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하는 품평회가 진행됐다. 또 체리를 활용한 잼, 와인 등 다양한 가공품 시식도 함께 마련해 경주 체리의 맛과 활용 가능성을 폭넓게 소개했다.

100년의 재배 역사를 지닌 '경주 체리'는 재배 면적 70ha 규모로 전국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지역 대표 특화작목이다. 특히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짧은 기간에만 신선하게 맛볼 수 있어 희소성과 상

품성을 함께 갖춘 과일로 평가 받고 있다. 시는 '농업대전환 특화작목 들녘특구' 사업을 통해 체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상기상에 대응한 비가림 시설 보급과 표준 수형 개발 등 고품질 생산 기반을 확대하며, 수입 체리와 차별화되는 국산 체리 주산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김정필 경주농업기술센터장은 "경주 체리는 오랜 재배 역사와 품질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표 특화작목"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경주 체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고품질 생산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limes.com

충남도, 청년농업인 선발 2차 모집 시작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접수

충남도는 6월 1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상반기에 1차 226명을 선발했다.

이번 2차 모집으로는 17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사업 시행 연도 기준 18~39세(1986~2008년도 출생자)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는 7월 진행되는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 8월 중 확정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최장 3년간 360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과 임차에 대한 후계농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후계농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권장한다.

신청은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농업이(e)지에서 하면 된다.

사업 지침 관련 정보는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와 도·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 및 시군 농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오수근 도 농업정책과장은 "영농 의지와 준비가 충분한 청년이 농업에 진입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김천시, 정부양곡 부산물 온라인 판매 시스템 운영

정부양곡 부산물 판매 절차 간소화 기대

김천시는 정부양곡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판매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유통 관리를 위해 '정부관리양곡 부산물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26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온라인 판매 시스템은 기존 전화·방문 중심의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구매자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가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구매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마련됐다.

시스템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 중심의 간편한 화면 구성으로 정보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했으며, 이에 따라 구매자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정부관리양곡 부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거래 이력을 전산화함

으로써 판매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행정 처리 효율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으로 정부관리 양곡 부산물 구매 절차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유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농기원, 조사료 품질관리 고도화 나서

근적외선분광분석기로 조사료 영양성분 신속 분석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조사료의 영양성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근적외선분광분석기(NIRS)를 활용해 조사료 품질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조사료는 한우·젖소·흑염소 등 반추가축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재배 및 수확 방법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크고 영양성분을 현장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는 NIRS 분석기술을 활용해 조사료의 조단백질, 섬유소, 수분, 에너지 등 주요 영양성분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축종별 맞춤형 사양관리에도 활용된다. 근적외선분광분석기 분석은 기존 화학분석에 비해 분석 시간이 짧고 현장 활용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조

사료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조사료 재배기술 개선과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사료 품질 데이터가 축적되면 전남지역 조사료의 품질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농가 맞춤형 사양관리와 조사

료 이용기술 고도화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최재은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장은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정밀 사양관리 기술지원을 통해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전남농기원 축산연구소에서 조사료검사를 진행하고 있다(전남농기원제공)

여주시, 양조용 벼 계약재배로 민·관·농 협력 모델 구축

여주시농업기술센터는 5월 28일 (주)화요 공창(경기도 여주시 소재)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주)화요와 함께 양조용 벼 품종 '화연' 계약재배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산 양조용 벼 보급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민·관·농 협력으로 고품질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식량과학원과 (주)화요는 지난해 프리미엄 증류주에 적합한 양조용 쌀 품종 선발을 위해 발효 적성 시험을 추진하여, 알코올 생

산량과 향기 성분이 우수한 '화연(밀양400호)'을 선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기도 여주시에 1헥타르(ha) 규모의 계약 재배단지를 조성했으며, (주)화요는 이곳에서 생산된 약 7톤의 쌀을 활용해 프리미엄 증류주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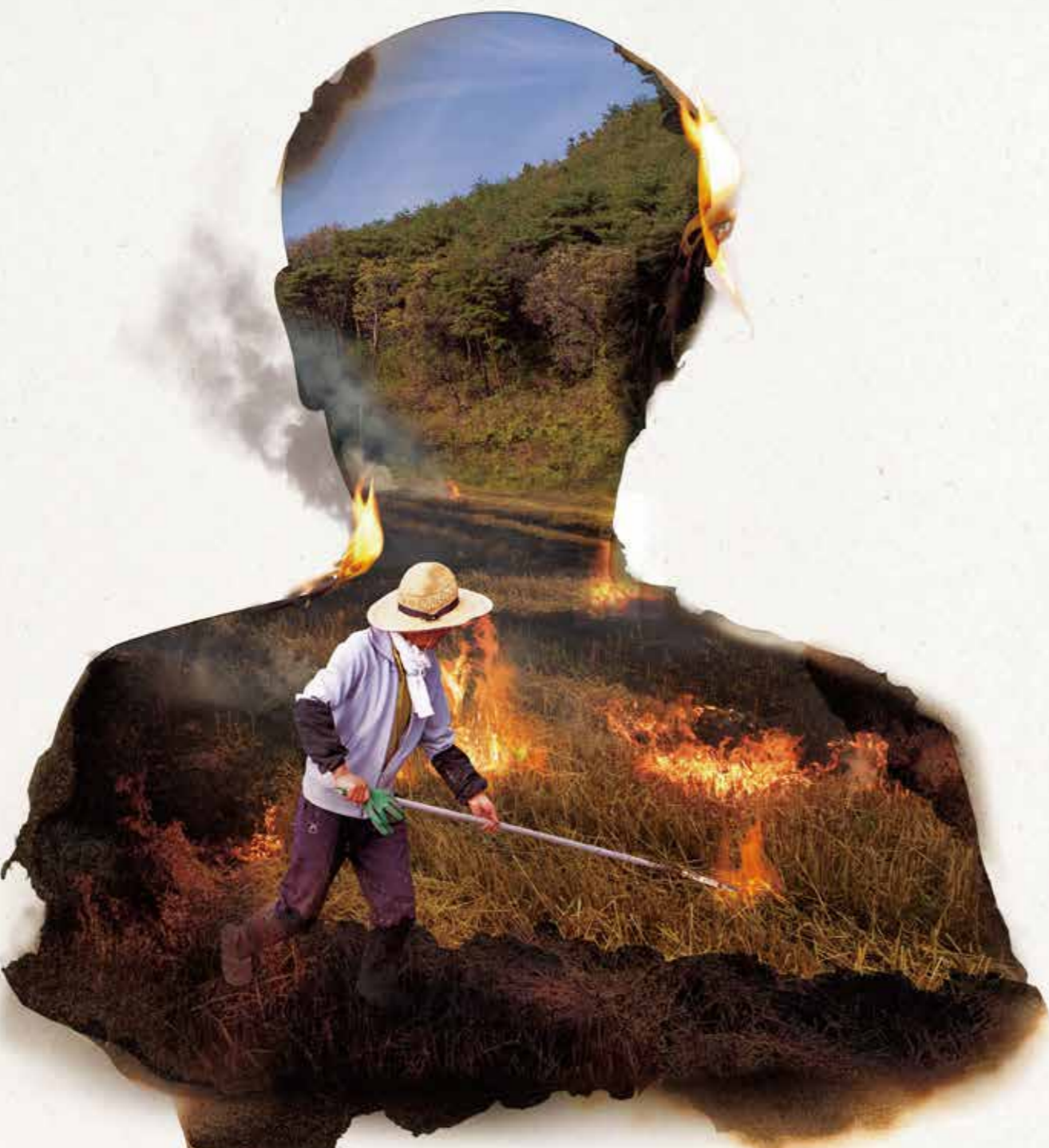
'화연'은 기존 원료곡보다 알코올이 많이 생산돼 발효 효율이 우수한 양조용 쌀 품종이다. 증류 시 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일향, 바나나향 등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중생종으로 수확량(749kg/10a)이 많고 병해충에 강

해 재배 안정성도 갖췄다. 협약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은 '화연' 품종 식량과 원료곡 품질 분석, 발효·증류 기술 협업, 원료곡 생산 기반 구축 담당한다. (주)화요는 '화연'을 활용한 프리미엄 증류주 제품 개발과 발효·증류 공정 최적화, 제품 상용화를 추진한다. (주)여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가에 적기 모내기와 비료·수확관리 등 최적의 맞춤 재배 기술을 지도하여 고품질 양조용 벼 생산을 관리한다.

안진아 기자
mida0210@naver.com



산림 100m이내 영농부산물 등 소각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소각,
당신의 생명도 태울 수 있습니다

예천군농민회, '통일 염원 손모내기 행사' 개최

예천군은 예천군농민회가 30일 오전 10시부터 지보면 매장리 일원에서 '풍년 기원 및 통일 염원 손모내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 농경문화를 보존하고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미래 세대에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예천군농민회 회원들을 비롯해 지보면지역 아동센터 학생 및 학부모, 지역 농업 관계자, 외부 초청 인사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한 해의 무사태평과 풍년을 농신(農神)에게 비는 '풍년기원제'로 막을 열었다. 이어 본격적인 '손모내기 체험'이 시작되자 참여자들은 못줄을 띄우

고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레 모를 심으며, 농업 기계화로 점차 보기 어려워진 전통 방식을 그대로 재현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땀 흘려 모를 심으며 농업의 가치를 되새

기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전통 농경문화를 계승하고, 우리 쌀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풍년기원 및 통일염원 손모내기 행사